

아파트 주거환경의 감성적 반응과 주거만족도의 상관성 연구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ffective Responses and Residents' Satisfaction in Apartment Housing Estates

정준현*

Jeong, Jun-Hyun

이윤정**

Lee, Youn-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ffective responses and residents' satisfaction in apartment housing estat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ffect of physical contents of apartment buildings on the affective response and satisfaction of residents. The area for evaluation was limited to four apartment buildings in Daegu, and the subjects for evaluation were also limited to a group of residents living at the four apartment building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the physical elements of each apartment and the affective factors was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mostl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his result also suggests that the satisfaction with the physical elements may vary depending on the affective attitude. SPSSWIN, a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Keywords : residents' satisfaction, affective responses, correlation

주요어 : 주거만족도, 감성적 반응, 상관성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화 및 핵가족화 과정으로 인하여 주택의 절대량이 도시에서는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도시주택 보급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방편으로 1960년대부터 단독주택보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주택의 대량공급과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장점으로 아파트유형의 주택건설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도시주택의 보편적인 주거형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¹⁾.

그러나 과거의 아파트 건설은 경제성을 내세운 소품종 대량생산에 중점을 두면서, 그저 법적 조건에만 맞추기 급급한 나머지 유사한 형태가 반복되는

외관과 배치 등으로 인해 단조롭고 삭막한 환경이 되어 현대 도시인들의 다양한 생활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환경이 되었다.

특히 최근 분양되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추구하며 내부환경뿐만 아니라 단지 외부환경에도 거주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80년대 이후 건립된 아파트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주거형태 선호와 기존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혹은 재개발 요구로 표출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이 다양화되고 인간의 감성적 사고가 강조되어지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구대학교 주거환경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대구대학교 강사, 공학박사

본 연구는 2003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2000년 현재 대구광역시의 경우 50%가 아파트 형식의 집합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대구광역시, 대구통계연보, 2000, 273)

감성적 평가는 현실적으로도 의미있는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만족도와 감성적 반응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아파트 주거건축의 물리적 내용이 실제 거주자들의 감성적 반응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하였다. 평가대상은 80년대 이후에 건설된 대구지역의 4개 아파트 단지로 한정하였으며²⁾, 평가에 참여한 피험자는 평가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 집단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아파트 외부환경에 대한 감성적 표현 어휘(형용사구)를 5단계 의미구분 등급의 감성평가도구(척도)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각 단지별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감성적 내용의 평가 조사는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406명(G단지 100명, H단지 105명, Y단지 100명, B단지 101명)을 대상으로 2002년 8월 13일~8월 19일에 걸쳐 단지를 방문한 조사요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은 SPSS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 거주자에 의한 아파트 외부환경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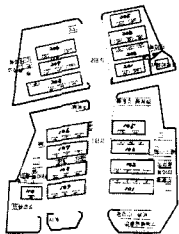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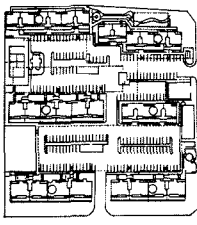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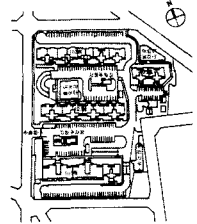
1. 단지별 개요

본 연구에서의 평가대상 아파트단지의 건축적 개요는 <표 1>과 같다.

G단지는 80년대 초반에 건설한 단지로서 대지면적 36,750 m²의 648세대 규모이다. 건폐율 20.2%, 용적율 202.3%, 조경율 23.0%로 비교적 깨끗하고 여유있는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H단지는 80년대 후반에 건설한 단지로서 1,162세대의 규모로 당시 대구지역에서는 대규모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대지면적 82,420 m², 건폐율 18.9%, 용

표 1. 단지별 개요

단지	배치도	건축개요	
		세대수	세대
G		세대수	648세대
		대지면적	36750 m ²
		건폐율	20.2%
		용적율	202.3%
		조경율	23%
		주차대수	720대
		층수	12층
H		세대수	1162세대
		대지면적	82420 m ²
		건폐율	18.9%
		용적율	211.3%
		조경율	25.7%
		주차대수	1300대
		층수	15층
Y		세대수	446세대
		대지면적	22743 m ²
		건폐율	19.9%
		용적율	236%
		조경율	30.2%
		주차대수	380대
		층수	15층
B		세대수	456세대
		대지면적	20050 m ²
		건폐율	21.2%
		용적율	227.2%
		조경율	24.9%
		주차대수	472대
		층수	20층

적율 211.3%, 조경면적 25.7%로 분양당시에는 우수한 환경조건으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단지라 할 수 있다.

Y단지는 90년대 초반에 건설한 단지로서 446세대의 규모이다. 대지면적 22,743 m², 건폐율 19.9%, 용적율 236%이며, 조경율은 비교적 높은 30.2%로, 위의 두 단지에 비해 규모는 작다. 그러나 분양당시 교통과 학군, 주변의 자연환경 조건이 양호하고 업체의 지명도 등에 의하여 선호도가 높았던 단지이다.

B단지는 90년대 후반에 건설한 단지로서, 456세대의 규모이다. 대지면적 20,050 m², 건폐율 21.2%, 용적율 227.2%이며, 조경율은 24.9%이다. 이 단지는

2)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 지역을 대구지역에 80, 90년대에 공급된 4개 아파트 단지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단지는 분양 당시 비교적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미루어 지역성과 시대성을 띠고 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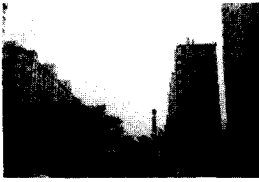


그림 1. G단지 전경



그림 2. H단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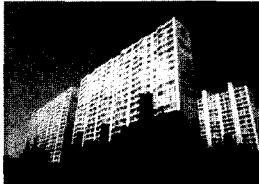


그림 3. Y단지 전경



그림 4. B단지 전경

1층 주호 전면에 개별 정원을 도입하여 분양 당시 비교적 양호한 환경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평가집단의 일반적 특성

직접설문에 의한 평가에 참여한 거주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 분포는 대부분 주부들이 큰 비중을 보였으며, 연령분포는 각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G단지와 Y단지는 40대가 각각 34.0%와 48.0%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H단지는 50대 이상이 41.9%인 반면, B단지는 30대가 50.5%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거주층 분포는 각 단지별로 5층 이하가 큰 비중을 보이거나 각 층별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거의 소유형태는 각 단지별로 자가 소유자가 대부분이다. 거주기간은 대부분 1년 이상의 거주 경험이 있어 주거환경의 만족도 평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거주 아파트로 이주하기 전의 주거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높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아파트의 거주경험이 다시 아파트 주거유형을 선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규모는 G단지의 경우는 30평형대가 높았으며, H단지와 Y단지는 40평형대, B단지는 30평형 미만인 분포가 높았다. 따라서 주거규모에 따라라도 주거만족도와 감성적 반응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2. 평가집단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항목	세부항목	G단지	H단지	Y단지	B단지	x2검정
성별	남	14(14.0)	25(23.8)	14(14.0)	12(11.9)	9.65
	여	86(86.0)	80(76.2)	86(86.0)	89(88.1)	
연령	30세 미만	6(6.0)	7(6.7)	9(9.0)	6(5.9)	232.85 ***
	30세~39세	28(28.0)	26(24.8)	23(23.0)	51(50.5)	
	40세~49세	34(34.0)	28(26.7)	48(48.0)	16(15.8)	
거주층	5층 이하	47(47.0)	46(43.8)	37(37.0)	37(36.6)	52.14 ***
	6~10층	40(40.0)	44(41.9)	28(28.0)	28(27.7)	
	11~15층	13(13.0)	15(14.3)	35(35.0)	26(25.7)	
소유형태	16층 이상	·	·	·	10(9.9)	7.67
	자가	90(90.0)	94(89.5)	87(87.0)	85(84.2)	
거주기간	전세	10(10.0)	11(10.5)	13(13.0)	16(15.8)	74.61 ***
	1년 미만	5(5.0)	9(8.6)	4(4.0)	18(17.8)	
	1년~5년	46(46.0)	28(26.7)	35(35.0)	67(66.3)	
전 주거형태	6년~9년	20(20.0)	27(25.7)	28(28.0)	16(15.8)	34.97 *
	10년 이상	29(29.0)	41(39.0)	33(33.0)	·	
	단독주택	32(32.0)	39(37.1)	30(30.0)	47(46.5)	
주거규모	아파트	66(66.0)	64(61.0)	70(70.0)	54(53.5)	555.95 ***
	기타	2(2.0)	2(1.9)	·	·	
	30평 미만	17(17.0)	·	1(1.0)	52(51.5)	
	30평~39평	54(54.0)	40(38.1)	42(42.0)	42(41.6)	
전 체	40평~49평	24(24.0)	47(44.8)	54(54.0)	7(6.9)	100.0
	50평 이상	5(5.0)	18(17.1)	3(3.0)	·	

*p<.05, **p<.01, ***p<.001

3. 물리적 요소에 대한 단지별 만족도

단지별 외부환경은 동 외관, 배치형태, 인동간격, 주차공간, 휴식공간, 조경 등의 물리적 요소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살펴보았다⁴⁾. <표 3>

전체적으로 중앙치인 0을 중심으로 -1에서 1사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G단지의 경우 ‘휴식공간’(0.11)을 제외하고는 불만족에 가까우며, 모든 항목에서 4단지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H단지와 B단지의 경

3) 물리적 요소는 선행연구(이윤정, 2000) 방법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내용은 거주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설명되었음.

4) 만족도는 5점 척도(-2: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0: 보통, 1: 만족, 2: 매우 만족)를 사용하여 정량화시켜 분석한다.

표 3. 물리적 요소에 대한 단지별 만족도

물리적 요소		G단지	H단지	Y단지	B단지	F검증
동 외관	평균	-0.28	-0.21	-0.15	-0.12	0.833
	표준편차	0.79	0.78	0.80	0.75	
배치 형태	평균	-0.61	-0.52	-0.10	-0.54	8.199***
	표준편차	0.75	0.83	0.85	0.82	
인동 간격	평균	-0.87	-0.11	0.10	-0.37	21.692***
	표준편차	0.72	1.02	0.90	0.91	
주차 공간	평균	-0.58	-0.15	0.53	-0.26	23.813***
	표준편차	0.98	0.95	0.97	0.93	
휴식 공간	평균	0.11	0.38	0.61	0.26	5.368**
	표준편차	0.92	0.92	0.86	0.95	
조경	평균	-0.49	-0.32	0.14	-0.25	7.993***
	표준편차	0.80	1.01	0.95	0.99	
전체	평균	-0.45	-0.16	0.19	-0.21	18.366***

*p<.05, **p<.01, ***p<.001

우는 ‘휴식공간’이 만족에 비교적 가까우며, 이를 제외하고는 불만족에 가까게 나타나고 있다. Y단지의 경우 4단지 중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인동간격’, ‘주차공간’, ‘휴식공간’, ‘조경’ 항목에서 만족에 가까우며, ‘동 외관’, ‘배치형태’의 항목에서는 불만족에 가깝다.

이처럼 80년대와 90년대의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은 입주당시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저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III. 아파트 외부환경의 감성평가와 주거만족도

1. 단지별 감성평가

평가집단에 의한 평가 항목별 평균득점으로 각 단지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평가는 5점 척도의 중앙치인 0을 중심으로 비교적 -1에서 1사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어느 쪽으로도 극단적인 감성평가 성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감성평가의 성향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단지, H단지, Y단지, B단지 각각의 감성적 반응은 ‘낯설은-익숙한’, ‘불쾌한-쾌적한’, ‘사막한-분위기 있는’, ‘화려한-소박한’, ‘거대한-아담한’, ‘낡은-새로운’, ‘전원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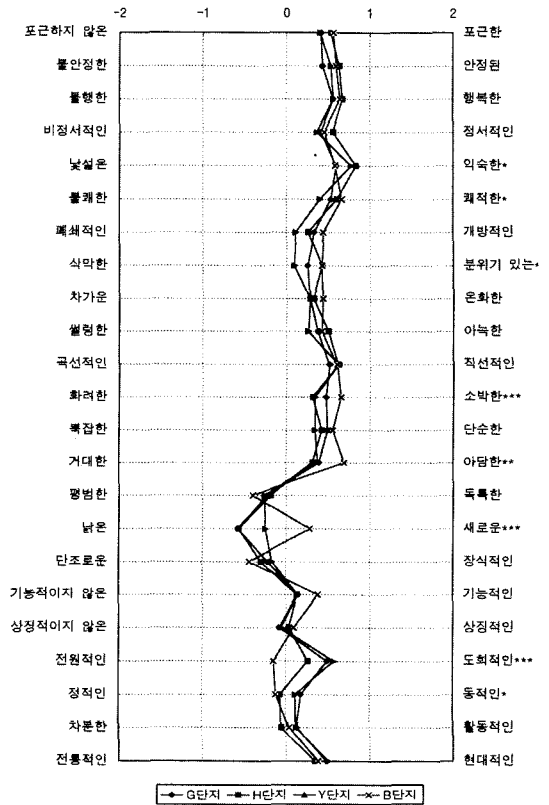


그림 5. 단지별 감성평가 비교

도회적인’, ‘정적인-동적인’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 (p<.05, p<.01, p<.001)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G단지의 경우 H단지, Y단지, B단지에 비해 감성량이 낮으며, 그중 ‘익숙한’ (0.59), ‘낯은’ (-0.58), ‘행복한’ (0.56) 등의 감성이 높다. H단지의 경우는 ‘익숙한’ (0.83)의 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행복한’ (0.67), ‘안정된’ (0.63), ‘직선적인’ (0.62) 등의 감성이다. Y단지의 경우 ‘익숙한’ (0.77)의 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선적인’ (0.62), ‘도회적인’ (0.57), ‘행복한’ (0.56) 등의 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B단지의 경우는 ‘아담한’ (0.69)의 감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쾌적한’ (0.66), ‘소박한’ (0.65), ‘행복한’ (0.64) 등의 감성이다.

2. 단지별 감성요인에 의한 평가⁵⁾

단지별 감성요인의 평균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4. 단지별 감성요인에 의한 평균 평가

단지	변인	정서성	친근성	독창성	기능성	전통성
		G	평균 0.49	0.35	0.28	-0.19
	표준편차	0.55	0.49	0.50	0.51	0.53
H	평균	0.63	0.42	0.21	-0.18	0.12
	표준편차	0.48	0.47	0.41	0.61	0.63
Y	평균	0.50	0.27	0.20	-0.09	0.33
	표준편차	0.55	0.48	0.45	0.53	0.43
B	평균	0.58	0.46	0.38	0.08	0.04
	표준편차	0.64	0.61	0.42	0.50	0.53
F검증		1.562	2.636*	3.368*	5.265**	7.365***

*p < .05, **p < .01, ***p < .001

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아파트 단지의 외부환경 조건에 따라 ‘친근성’, ‘독창성’, ‘기능성’의 반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p < .05, p < .01, p < .001)을 보여주고 있다.

G단지의 경우 ‘정서성’(0.49)과 ‘기능성’(-0.19)은 4개 단지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G

5) <그림 5>의 23개의 감성평가 형용사를 몇 개 집단의 감성적 속성으로 규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행하였다. 요인분석은 요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5개의 요인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들 요인은 베리맥스 회전해법을 통하여 적재값을 구하였다. 이들 5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70.1%이다.

표 . 감성 요인 및 설명력

분류계열	형용사쌍	고유값	설명력(%)
정서성	포근하지 않은 - 포근한 불안정한 - 안정된 불행한 - 행복한 비정서적인 - 정서적인 낯설은 - 익숙한 불쾌한 - 쾌적한	7.909	38.4
친근성	폐쇄적인 - 개방적인 삭막한 - 분위기가 있는 차가운 - 온화한 생략한 - 아늑한 곡선적인 - 직선적인	2.261	9.5
독창성	화려한 - 소박한 복잡한 - 단순한 저대한 - 아담한 평범한 - 독특한	1.872	8.2
기능성	낡은 - 새로운 단조로운 - 장식적인 기능적이지 않은 - 기능적인 상징적이지 않은 - 상징적인	1.570	7.2
전통성	절원적인 - 도회적인 정적인 - 동적인 차분한 - 활동적인 전통적인 - 현대적인	1.442	6.8

단지가 다른 3개 단지에 비해 ‘정서성’, ‘기능성’의 감성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중 ‘정서성’(0.63)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정서성’의 감성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를 비교적 풍부히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Y단지의 경우는 ‘전통성’(0.33)의 평가에서 4개 단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친근성’(0.27), ‘독창성’(0.20)의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Y단지는 ‘친근성’, ‘독창성’의 감성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가 비교적 풍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단지의 경우, ‘전통성’(0.04)의 평가에서 4개 단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나, ‘친근성’(0.46), ‘독창성’(0.38), ‘기능성’(0.08)의 평가에서는 4개 단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통해 B단지는 ‘친근성’, ‘독창성’, ‘기능성’의 감성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가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지별 차이는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구성 내용에 따라 감성적 반응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V. 아파트 외부환경의 감성평가와 주거만족도의 상관성

1. 거주자 일반적 특성에 의한 만족도의 상관성

4개 단지별 거주자 집단의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연령대에 따라 G단지는 ‘인동간격’, ‘휴식공간’ 요인에, H단지는 ‘인동간격’, ‘휴식공간’, ‘조경’ 요인에, Y단지는 ‘동 외관’, ‘배치형태’, ‘조경’ 요인에, B단지는 ‘동 외관’, ‘인동간격’, ‘휴식공간’, ‘조경’ 요인에 부(-)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4개 단지 거주자 집단 전체는 6개 요인 전체에 대해 부(-)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파트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G단지가 ‘휴식공간’ 요인에, H단지는 ‘동 외관’, ‘주차공간’ 요인에, Y단지는 ‘동 외관’, ‘배치형태’의 요인에 부(-)적 상관성을

표 5. 거주자 일반적 특성에 의한 만족도의 상관성

거주자 특성	만족도						
	동외관	배치형태	인동간격	주차공간	휴식공간	조경	
연령	G단지	-0.053	-0.108		-0.084		-0.106
	H단지	-0.130	-0.180		-0.024		
	Y단지			-0.185	-0.133	-0.184	
	B단지		-0.128		-0.149		
	전체						
거주층	G단지	0.009	0.043	-0.012	0.078		0.042
	H단지	0.079	0.012	-0.007	0.104	-0.047	-0.054
	Y단지	-0.034	-0.003	-0.141	0.135	0.085	0.177
	B단지	-0.104	-0.194	-0.181	-0.166	-0.014	-0.008
	전체	-0.004	-0.024	-0.052	0.063	0.065	0.068
거주기간	G단지		-0.107	-0.082	-0.062		0.010
	H단지		-0.191	-0.146		-0.146	-0.072
	Y단지			-0.098	-0.088	-0.152	-0.007
	B단지	-0.005	-0.107	0.061	-0.028		0.147
	전체			-0.027	-0.052	-0.055	0.017
전주거형태	G단지	0.133	-0.011	0.065	0.134	0.041	0.093
	H단지	0.190	-0.002	0.110	0.148	0.141	0.046
	Y단지	-0.075	-0.151	0.009	-0.037	0.127	-0.035
	B단지	-0.123	0.171	-0.005	0.139	0.040	-0.081
	전체	0.031	0.008	0.036	0.091	0.084	-0.001
주거규모	G단지	0.195	-0.048		0.027	-0.103	-0.040
	H단지	-0.035	-0.158	-0.106	-0.161	0.056	0.178
	Y단지	-0.001	0.014	0.032	0.131	-0.183	-0.036
	B단지	-0.007	-0.106	-0.120	0.087	0.020	0.048
	전체	0.012	-0.028	0.003	0.073	0.018	0.066

*p < .05, **p < .01, ***p < .001

보이며, B단지는 ‘휴식공간’ 요인에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4개 단지 거주자 집단 전체는 ‘동 외관’, ‘배치형태’ 요인에 각각 부(-)적 상관성을 보이며,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동 외관’, ‘배치형태’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아파트 외부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의식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은 곧 주거 이동의 동기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거주자의 ‘거주층’, ‘전 주거형태’, ‘주거 규모’에 따른 물리적 요소의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거주자 일반적 특성에 의한 감성적 반응의 상관성
4개 단지별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적

표 6. 거주자 일반적 특성에 의한 감성적 반응의 상관성

거주자 특성	요인	감성적 반응				
		정서성	친근성	독창성	기능성	전통성
연령	G단지	-0.066	0.066	-0.012	-0.037	0.122
	H단지	0.042	0.075	0.057	0.142	0.189
	Y단지			0.158	0.237*	0.044
	B단지	0.121	0.141	0.102	0.169	0.040
	전체	0.083		0.060		
거주층	G단지	-0.181			-0.054	-0.105
	H단지	-0.176	-0.009	0.105		0.004
	Y단지	0.036		-0.115	0.052	-0.099
	B단지	0.104	0.134	0.137	0.111	0.171
	전체	-0.024	0.071	-0.026	-0.002	-0.008
거주기간	G단지	0.143	0.153	0.180	0.084	
	H단지	0.134		-0.110		0.146
	Y단지					0.146
	B단지			-0.102	0.135	
	전체			0.010		
전주거형태	G단지	0.180	0.086	0.085	-0.108	
	H단지	-0.063	-0.091	-0.070		-0.133
	Y단지	0.137	0.111	0.010	-0.176	-0.059
	B단지	-0.143	-0.108	0.014	-0.021	0.073
	전체	0.012	-0.023	-0.003		-0.074
주거규모	G단지	-0.038	0.029	0.104	-0.167	0.149
	H단지	0.160	0.052	-0.024	0.202*	0.145
	Y단지	-0.003		0.014	0.111	-0.091
	B단지	-0.035	0.109	0.008	0.074	-0.216*
	전체	0.032	0.044	-0.058	-0.021	0.072

*p < .05, **p < .01, ***p < .001

반응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연령대에 따라 Y단지는 ‘정서성’, ‘친근성’, ‘기능성’ 요인에 정(+)적 상관성을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친근성’, ‘기능성’, ‘전통성’ 요인에 대해 정(+)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거주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파트 외부환경에 대한 ‘친근성’, ‘기능성’, ‘전통성’ 요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G단지가 ‘전통성’ 요인에, H단지는 ‘친근성’, ‘기능성’ 요인에, Y단지는 ‘정서성’, ‘친근성’, ‘독창성’, ‘기능성’의 요인에, B단지는 ‘정서성’, ‘친근성’, ‘전통성’ 요인에 정

표 7. 감성적 반응과 주거만족도의 상관성

만족도		요인	정서성	친근성	독창성	기능성	전통성
동외관	G단지					-0.170	-0.180
	H단지			-0.130			-0.189
	Y단지						0.026
	B단지		-0.168	-0.157	-0.170		-0.008
	전체						
배치형태	G단지			-0.160	-0.165		
	H단지			-0.148	-0.095		
	Y단지						0.014
	B단지						-0.120
	전체						
인동간격	G단지		-0.169	-0.039	0.012		-0.149
	H단지	-0.083	-0.176			-0.117	
	Y단지	-0.132	-0.386***	-0.173			0.058
	B단지			-0.138	-0.158	-0.121	
	전체						
주차공간	G단지	-0.188		-0.099	-0.151		-0.193
	H단지		-0.157	-0.002	-0.060		-0.143
	Y단지						0.013
	B단지						-0.092
	전체						-0.077
휴식공간	G단지					-0.151	-0.124
	H단지					-0.163	
	Y단지	-0.036		-0.131			0.039
	B단지	-0.030	0.025	-0.051	-0.048	-0.019	
	전체						
조경	G단지					-0.130	-0.144
	H단지			-0.162	0.034		-0.056
	Y단지	-0.116		-0.171			0.029
	B단지		-0.160	-0.181	-0.063	0.008	
	전체				-0.079	-0.026	

*p < .05, **p < .01, ***p < .001

(+)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정서성’, ‘친근성’, ‘기능성’, ‘전통성’ 요인에 각각 정(+)적 상관성을 보이며,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아파트 외부환경에 대한 감성적 내용이 풍부하다는 의식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전 주거형태의 변인은 G단지가 ‘전통성’ 요인에, H단지가 ‘기능성’ 요인에 부(-)적 상관성을 보이며, 4개 단지 거주자 집단 전체는 ‘기능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을 보인다. 이는 아파트의 거주경험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가 감성

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아파트 외부환경이 과거에 비해 다양한 감성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층, 주거규모의 경우는 4개 단지 거주자 집단 전체는 5개 요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단지별로 살펴보면, 거주층의 경우 G단지가 ‘친근성’, ‘독창성’ 요인에, H단지가 ‘기능성’ 요인에 부(-)적 상관성을 보이며, Y단지가 ‘친근성’ 요인에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주거규모의 경우 H단지가 ‘기능성’ 요인에, Y단지가 ‘친근성’ 요인에 정(+)적 상관성을 보이며, B단지가 ‘전통성’ 요인에 부(-)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3. 감성적 반응과 주거만족도의 상관성

4개 단지별 거주자 집단의 아파트 외부환경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감성요인의 반응사이에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아파트 외부환경의 물리적 요소 중 ‘동 외관’, ‘배치형태’, ‘인동간격’, ‘휴식공간’에 대한 물리적 만족도와 각 감성요인별 반응과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통성’을 제외한 각각의 감성요인에서 부(-)적 상관성을 보였으며, ‘조경’의 내용에 따라서도 ‘기능성’과 ‘전통성’을 제외하고는 부(-)적 경향으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감성적 태도가 전체적인 거주 만족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아파트 외부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만족도와 감성적 반응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평가대상 아파트 외부환경의 물리적 구성요소를 6개 요소로 대별하여 거주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아파트의 외부공간에 대한 거주자/환경의 작용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구성요소를 정량화하여 이를 평가의 단위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거주자들의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동 외관, 배치형태, 인동간격, 주차공간, 휴식공간, 조경 등의 물리적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비교적 낮은 만족도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지별 외부환경에 대해 거주자 집단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리적 환경조건과 거주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3) 평가 집단인 거주자들에 의해 선별된 감성어휘 23개는 '정서성', '친근성', '독창성', '기능성', '전통성'의 다섯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들 요인은 아파트 외부환경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감성적 반응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4) 평가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주자들의 감성적 반응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비교적 낮은 긍정적인 측면의 감성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단지별 외부환경에 대해 거주자집단은 '친근성', '독창성', '기능성', '전통성' 등의 감성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거주자/환경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아파트 외부환경의 물리적 내용이 거주자의 감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각 단지 거주자 집단의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감성요인은 '연령', '거주기간'에 따라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전 주거형태'에 따라 '기능성' 요인에 부

(-)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각 단지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감성 요인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물리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감성적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거주자 만족도 조사는 물리적 내용에 따라 감성적 태도의 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Henry Sanoff (1977), *Measuring Attributes of the Visual Environment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Ed. Lang, J., Burnette, C., Moleski, W. Pennsylvania: DH&R, 244-260.
2. Kapila D. Silva (2001), *Issues in Urban Design*. EDRA. 32, 15-21.
3. 谷口汎邦, 宮本文人, 菅野寛, *建築群が構成する?み空間の物理的特性と視覚的意味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劃論文報告集第 451?, 1993, 9.
4. 고주석. "삶의 질과 미래의 거시적 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 이연숙 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431-452.
5. 김선수 (1994), 아파트 외장색채와 환경요인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2) 65-74.
6. 심재경·정무용(1998), 사용자 감성에 의한 공동주택 설계 방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0) 147-155.
7. 안경환(1989), 거주 후 주거환경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윤정숙·전영미·김수경(1997), 욕실공간 계획을 위한 감성공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5(3) 171-179.
9. 이영석(1992), 『주거환경계획』. 대우출판사.
10. 이윤정(2000), 아파트 외부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감성적 평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